

남원, 노후 하수관로 대폭 교체

700억원 들여 농어촌마을하수도 2개 지구 정비

남원시가 시민들의 생활환경과 악취에 따른 주민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노후 하수관 정비에 대대적으로 나서고 있다.

남원시 환경사업소(소장 강인식)에 서는 올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남원시가 노후 하수관 정비에 대대적으로 나서고 있다.

노후된 하수관로 정비와 하수도 예산을 확보하는 등 지속적인 투자 노력으로 하수도 사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며, 현재 시내권 동지역의 차집관로를 정비하는 강우시 하수관리 시범사업에 700억원(국비 490억, 시비 210억)을 투입하고, 농어촌마을하수도 2개 지구(용진, 서도 지구)를 대상으로 면 단위 지역의 하수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하반기에는 시청 주변 하수관로 정비를 위한 사업을 시행할 예정으로, 1993년 택지조성사업 당시 설치했던 노후 하수관로 정비를 통해 그동안 악취 등에 따른 주민불편사항이 대폭 개선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2019년 하반기 신규 사업인 3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272억원(국비 190억, 시비 82억)을 확보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사업 발주를 위한 행정절차가 마무리 되는대로 해당사업도 조기 추진할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오늘부터 제14회 순창장류축제 개막

순창고추장민속마을 일원서 3일간 열려

제14회 순창장류축제가 18일 순창고추장민속마을 일원에서 열린다. '천년의 장맛, 백년의 미소'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되는 이번 축제는 지난해와 다르게 콘텐츠를 대폭 강화했다. 우선 '도전! 다함께 순창고추장 만들자'라는 프로그램으로 축제장을 찾은 방문객들과 함께 고추장을 만들고, 숙성시켜 다음해 돌려주도록 해 관람객의 재방문을 유도한다.

전국 유명 떡볶이를 한 곳에 초청해 어린 학생부터 여성 방문객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가을의 전령사인 코스모스도 축제장 전역에 심어 놓아 어느 곳이든 사진 찍기 좋은 곳으로 만들었다. 또한 야간에도 즐길 수 있는 축제 분위기를 위해 축제기간 3일내내 전문 DJ 디제잉쇼와 EDM 서치쇼로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킬 예정이다.

또한 젊은 방문객들이 좋아할 만한

개막일인 18일에는 임금님 진상행렬

을 재현하는 행사를 개막식 전에 가져 고추장의 역사를 다시 한 번 되짚어보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

맛거리로는 순창만의 독특한 소스를 맛볼 수 있는 장류 소스 숯불구이 체험존을 조성해 축제장 방문객의 허기진 배를 책임진다. 이외에도 전기차를 무료로 운행해 어린이나 노약자가 편안하게 축제장을 구경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같은 장소에서 2019 순창세계발효소스박람회와 동시에 개막한다. 올해로 4년째를 맞는 순창세계발효소스박람회는 고추장민속마을 일대에서 기업전시관과 체험프로그램, 국제포럼, 유명 스타셰프 쿠킹 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올해는 박람회장에 젊은 층 유입을 위해 유명 유튜브 하나씨를 초청, 라이브 방송도 진행해 박람회 현장에서 뿐 아니라 실시간으로 집에서도 박람회장을 관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번 박람회를 맞아 순창군이 야심차게 개발한 '순창매운소스'도 첫선을 보이며, 이와 함께 2020년 완제품 개발을 목표로 진행중인 '블루베리 꼬냑도 시음행사'를 갖는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전 세계 다양한 소스를 맛보고 즐길 수 있도록 야심차게 준비했다"면서 "가족들과 손 잡고 축제장을 방문해 즐거운 주말을



제14회 순창장류축제가 18일 순창고추장민속마을 일원에서 열린다.

제4회 아삭아삭 김장페스티벌 참여하세요

25일까지 신청접수

오는 11월에 열리는 제4회 임실 아삭아삭 김장페스티벌을 앞두고 신청 접수 열기가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올해 김장에 대해 고민 중인 가정이라면 김치명인이 함께하는 임실군 김장 페스티벌의 참여 신청을 서둘러야 할 것 같다.

임실군은 김치명인이 함께하는 제4회 임실 아삭아삭 김장페스티벌을 11월 9일부터 17일까지 9일간 임실군 성수면에 소재한 임실N양념가공·김치체험장 광장에서 개최한다.

이를 위해 9월 16일부터 참가신청자 접수를 받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참여했던 가정은 물론 입소문을 타고 신청접수와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접수기한을 10여일 앞둔 16일 현재 신청세대가 400여 세대를 넘어서 주말 신청은 조기 마감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와 같은 인기는 2018년 도내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김장페스티벌의 성공적인 개최에 따른 입소문 효과를 탄 것이 주요원인이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한 김장페스티벌은 지역민은 물론 김장에 대한 부담이 큰 전주, 군산, 익산 등 인근 도시민들의 참여열기가 매우 높아, 큰 호평을 받았다.

심 민 군수는 "김장페스티벌에 갈수록 기대 이상의 참가자가 몰려 지난해 참여하지 못한 가정도 모두 참여 할 수 있도록 올해는 물량과 기간을 대폭 늘렸다"며 많은 가정과 단체의 참여를 당부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지역 매아리

임실군의회, 군정질문 돌입

임실군의회(의장 신대용)는 17일 제28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를 대상으로 2019년도 군정 전반에 대한 군정질문을 가졌다. 이번 군정질문에는 김왕중 부의장을 비롯한 3명의 의원이 군정질문에 나섰다.

이번 첫 질문에 나선 김왕중 부의장은 치즈테마파크 내 특산물판매장 위탁운영을 향후 군이 지역으로 운영할 계획이 있는지 질문하였으며, 두 번째로 임실치즈N식품연구소 운영 조직 관련 감축 및 운영 방안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였다.

심민 임실군수는 "치즈테마파크 조성 당시와 현재 임실N치즈축제 등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당량마을 주민들의 마을 법인에 판매장을 위탁 운영하고 있다고 말하며, 판매장 운영만이라도 마을법인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서 두 번째 질문에 나선 장종민 의원은 2022년 12월 말로 사용기간이 끝나는 관촌 생활쓰레기 매립장의 향후 운영계획과 저소득층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하는 북부권 공공임대주택 건립계획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였다.

마지막으로 황일권 의원은 임실군은 고령 인구가 겪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한 만큼 전문 담당직원을 지정하여 고령화에 따른 장기적인 맞춤형대책 수립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지리산전북사무소, 공원관리 대책 마련

지리산국립공원 전북사무소(소장 조점현)는 가을 단풍철 탐방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전하고 깨끗한 국립공원 조성을 위해 가을 성수기 공원관리 특별대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금년 가을 성수기는 오는 19일부터 11월 17일까지로, 계속 내 안전시설 설치, 야영장 등 탐방객 이용시설 정비 및 평화활동 등을 사전 점검해 탐방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국립공

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또한, 계속 내 취사, 셋길 출입, 불법 주차행위, 지정된 장소 밖에서 야영행위 등 불법·무질서 행위에 대해서는 사전에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강력히 단속하며, 위법행위는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공간통합·시설공유형 협업

전남대학교 노화과학연구소, 순창서 의료봉사 실시

순창건강장수사업소와 전남대학교 노화과학연구소가 공동으로 오는 19일에 순창장류축제장내 민속마을 회관에서 '어르신 무료 의료봉사'를 갖는다. 이는 행정안전부 '공간통합·시설공유형 협업사업'의 '구속순담 통합 프로그램 운영' 사업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65세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봉사는 순창건강장수사업소와 전남대학교 노화과학연구소가 주최하고 구속순담 장수벨트행정협의회가 후원하며, 19일 당일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 진행한다. 올해 처음으로 진행되는 이번 봉사에 50여 명의 어르

신이 진료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봉사단은 의료분야 전문교수 5명과 간호사 2명, 보조인력 3명 등 총 10명의 인력으로 꾸려질 전망이다.

군은 이번 봉사활동을 시작으로 구속순담 통합 프로그램의 지속적 운영과 농촌건강장수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국가예산 확보 등 다양한 발전적 활동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한편 전남대학교 노화과학연구소는 오는 19일 순창군을 시작으로, 11월 4일 전남 담양군, 11월 5일 곡성군, 11월 8일 구례군의 순으로 무료 봉사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농기센터, 배추 생육관리 총력

남원시농업기술센터(소장 나삼우)가 생육부진과 병해충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배추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 현장 지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리산 출향골 남원에서는 김장채소인 배추가 8월 말부터 정식에 들어가 현재는 경엽 신장기를 지나 결구기를 맞고 있으며, 올해는 작년과 대조적으로 정식 기 고온과 건조로 인한 진딧물 및 해충의 발생 밀도가 높았고, 가을철엔 잦은 태풍과 집중호우로 병해 발생이 증가하여 더욱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태풍과 장마로 인해 생육이 부진한 포장은 요소 0.2%액을 엽면 살포함으로써 생육을 도모하고, 무름병과 연작에 의한 뿌리혹병 등 병해 방제를 위해 배추 관리를 철저하게 병 확산 및 피해를 최소화해야하며, 해충(나방 유충, 진딧물 등)에 대해서도 작용기작이 다른 2가지 이상의 적용 약제를 2~3회 방제에 힘써야 한다.

시비관리는 정식 후 배추는 15일 간격으로 4회에 걸쳐 요소 및 염화기리를 웃거름으로 주어야 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포기가 작아지지 않는다.

/남원=김기두 기자

IMSEOL CHEESE
임실엔 치즈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N 치즈

벨기에 출신 지정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